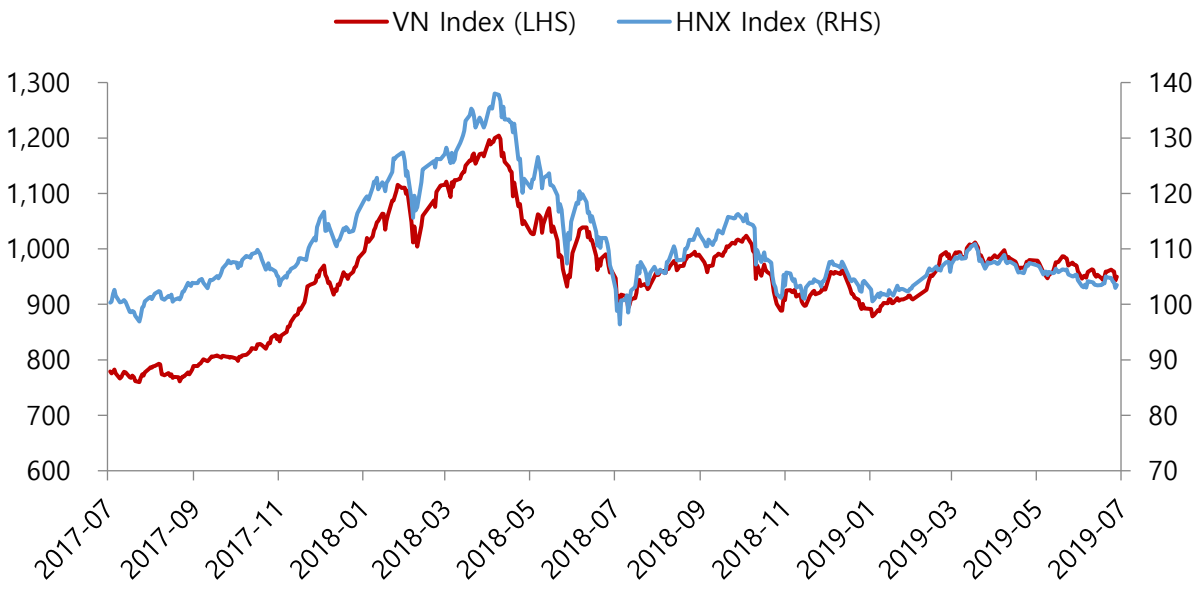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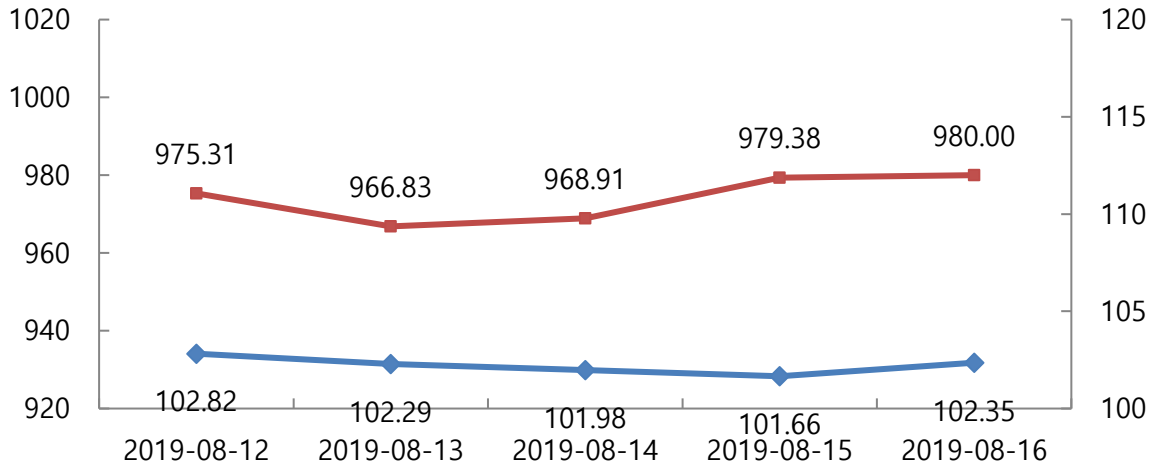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VN 지수는 13 일 전일대비 8.48 포인트(0.87%) 하락한 966.83 으로 위기를 맞이했으나 부진한 대형주의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3 영업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16 일 전일 대비 0.62 포인트(0.06%) 상승한 980.00 으로 장을 마감했다. HNX 지수는 13 일부터 3 영업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16 일 전일대비 0.69 포인트(0.68%) 상승한 102.35 로 장을 마감하며 한숨을 돌렸다.

■ 개별 기업 뉴스

○ Vinalines, 적자 보고

해운회사 Vinalines 가 유지비가 비싼 적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한 후 상반기 6330억 동(27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다. 베트남의 최대 해운회사인 Vinalines는 화물 용량이 232,000톤인 11척의 낡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이를 판매하고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새 선박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영기업인 Vinalines는 2018년 상반기 420억 동(1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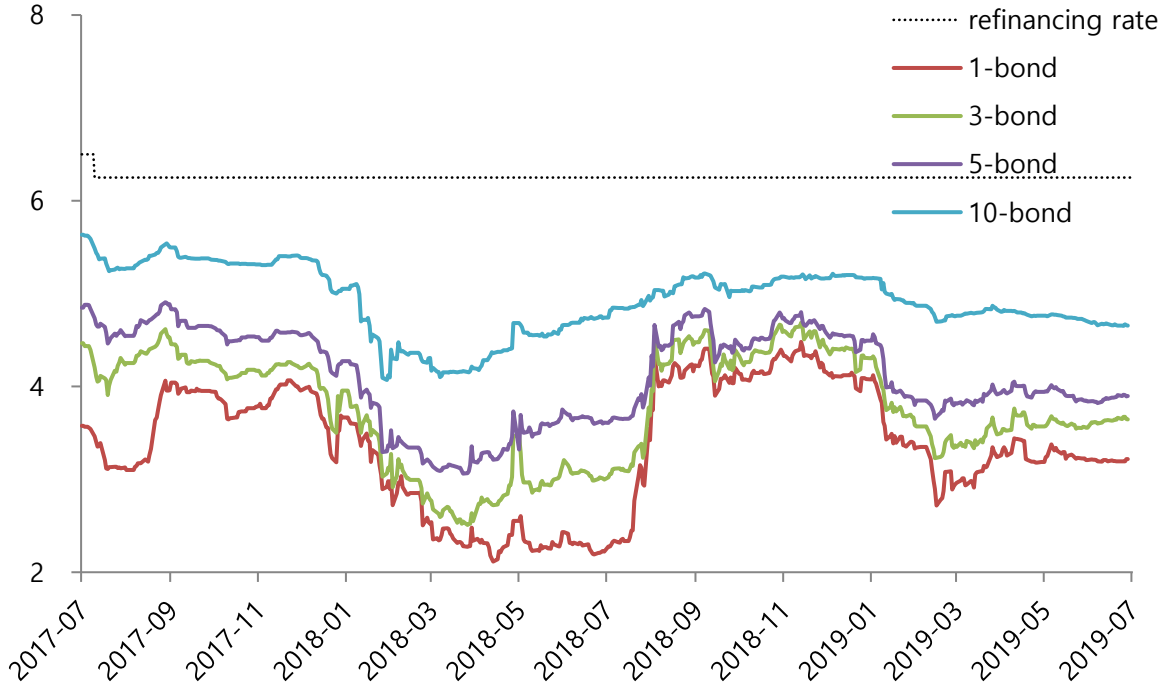
2. 주요 경제 동향

■ 베트남 국내민간부문, 낮은 노동생산성

공공부문이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내 민간 부문의 생산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17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베트남 국내 민간부문의 연간 인당 생산성 2억2820만 동(9,800달러)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부문은 3억 3080만 동(14,200 달러)을, 공공 부문은 6억 7810만 동(29,140 달러)을 기록했다. 베트남 국내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성이 낮았던 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술, 은행 신용, 숙련된 노동력을 획득하거나 선도적인 가치 체인에 참여하거나 규모의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 부문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의 부재와 낮은 수준의 노동력이다. 생산 관리 부진과 경험 부족도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주된 문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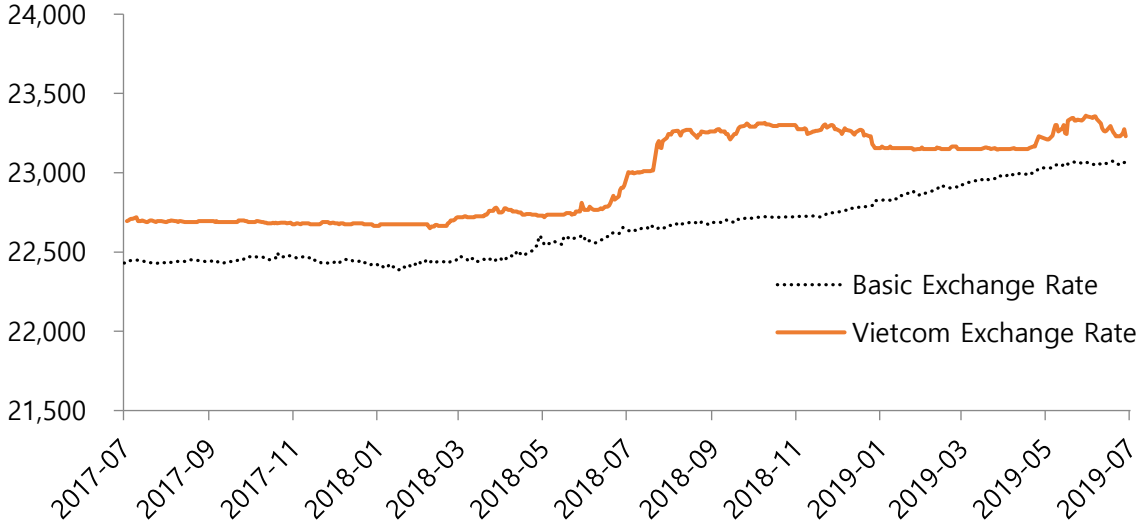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9-08-16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150	23,150	23,270



■ 성장하는 베트남 파생 상품시장

베트남의 30대 대형주 중 약 10만개의 선물계약이 매일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일 평균 거래량은 2017년 평균의 10배 가까이로 지난해에 비해 27% 높아졌다. 베트남 하노이 증권거래소(HNX)에 따르면, 2017년 8월 10일 베트남 파생상품시장의 출범 이후 총 3600만 건의 선물 계약이 거래됐다. 2019년 7월 현재 78,445개의 파생상품거래계좌가 개설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투자자의 대부분은 현지 개인으로, 선물 계약 거래의 91%를 차지한다.

■ 베트남, 외화 대출 축소 조치

시중은행들은 올해 9월 30일부터 수입 상품과 서비스의 역외 지불을 위한 중장기 외화 대출을 더 이상 허용하기 않기로 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따르면, 이 조치는 경제의 달러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 관련 거래를 차입과 대출로부터 매입과 판매로 전환하려는 SBV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현지 수입업체들은 역외 지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동으로 대출을 받고 달러를 사야 한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공식 부동산 정보 채널 프로젝트

건설부 산하 부동산관리국과 베트남국가부동산협회(VNREA)는 허가된 프로젝트, 해당 지역의 허가를 기다리는 프로젝트의 수 등 베트남의 부동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채널을 개발하고 있다. 시장 공급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 기업, 투자자 및 부동산 구매자들은 장기 전략적 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기가 매우 어려웠다. VNREA의 서기장은 프로젝트는 올해 말까지 끝날 예정이며 전체 시장을 위한 공식 부동산 정보 채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5. 한국 기업 동향

■ 신한은행, 한국계 은행 최초로 베트남 다낭 진출

신한은행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 15일 4개 지점을 동시에 개점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올해에만 6개 지점을 개점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36개 지점을 보유하게 됐다.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에 20개, 하노이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에 15개, 그리고 베트남 중부인 다낭 지점까지 총 36개다. 특히 신한은행에서는 중부지역인 다낭에 지점을 개설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계 은행 중에 처음으로 다낭에 지점을 개설했다. 이로써 베트남 남부와 중부, 북부를 잇는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More information: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30373)

■ 국민은행, '베트남 동 바로송금 서비스' 시행

국민은행은 최근 베트남 동(VND)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 KB 베트남 동(VND) 바로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앞으로 베트남 현지에서도 단일 환율이 적용돼 해외송금 고객에게 보다 저렴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특히 현지 송금 중계 전문은행인 Vietcombank와의 직접 제휴를 통해 중계 및 지급 수수료 포함 현지 수수료를 약 4000원 수준으로 인하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동(VND) 바로송금 서비스 시행을 통해 국내 거주 베트남 근로자 및 교민과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More information: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0815130712851742246731f3_16)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jiho@jplawvn.com +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